

# 원효의 불신화쟁론(佛身和諍論)

- 보신불의 상주성과 무상성 -

김영일\*

• 목 차 •

- I. 서론
- II. 무상설과 상주설
  - 1. 무상설의 입장
  - 2. 상주설의 입장
- III. 양설의 중요논점
  - 1. 경전의 근거
  - 2. 해석의 차이
  - 3. 언어의 한계
- IV. 원효의 판단
  - 1. '양설은 옳다'
  - 2. '옳고 그르다'
- V. 결론

---

\* 동국대 강사.

## 한글요약

본고는 원효의 불신화쟁론을 살펴보기 위해서, ‘보신불의 상주성과 무상성’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하여 원효가 어떠한 견해로 화쟁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열반종요』를 중심으로 『기신론소』, 『무량수경종요』 같은 원효의 저서와 그의 『십문화쟁론』을 인용한 『동이약집』 등을 활용하였고, 이점과 관련된 현대학자들의 연구성과에서 도움을 받았다. 첫째로, 양설은 각자의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다. 무상설은, “태어난 것은 반드시 소멸하고, 다른 존재와는 심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신불은 소멸하는 무상한 존재이다.”라는 입장에 있다. 또한, 상주설은, “보신불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자체가 없거나, 발생의 원인은 있더라도 발생의 모습은 떠나 있기 때문에, 보신불은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상주한다.”라는 입장에 있다.

둘째로, 양설은 적어도 3가지 논점에서 논쟁한다. 첫째, 무상설은 상주관련 문구는 성문들이 무위에 집착하는 것을 다스리기 위한 방편설이라고 변호하고, 상주설은 무상관련 문구는 화신불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변론한다. 둘째, ‘7가지 인연’과 ‘공통된 원인’과 관련된 상주설의 해석을 무상설은 자기 나름대로 새롭게 해석해서 이 논리로 반박한다. 셋째, 무상설은 언어표현의 한계를 벗어난 상주설의 기본입장이 모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박한다.

셋째로, 원효는 이러한 양설의 논란에 대해서 2가지 방식이지만 같은 취지로 회통한다. 『십문화쟁론』에서는, 무상설은 ‘원인에 따라서 생겨난다’는 부문을 취하였고, 상주설은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부문을 취한 결과 가지게 된 견해이어서 ‘양설은 모두 옳다’고 한다. 또한, 『열반종요』에서는, 결정적으로 한쪽의 주장만을 고집하면 양설이 모두 그르게 되고, 아무런 장애 없이 말하면 양설이 모두 옳게 되기에, 양설이 ‘동시에 옳고 그르다’고 판단한다.

## 주제어

원효, 화쟁론, 원효화쟁론, 불신화쟁론, 보신불, 상주설, 무상설, 『십문화쟁론』, 『대승기신론동이약집』, 『열반종요』

## I. 서론

오늘날 많은 불교학자들은 ‘원효’를 한국불교를 대표할만한 분 중의 하나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의 저서를 읽어본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담긴 활달한 문장과 심오한 사상으로부터 깊은 감명을 받은 한다. 그는 불교에 있어서 이론가, 수행자, 신앙인의 면모를 두루 갖추고, 여러 방면에 걸쳐서 큰 발자취를 남겼다. 본고는 이러한 그의 여러 모습 중에서 주로 불교이론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원효의 불교이론은 내용이 방대하여 불교교학의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라고 하면 바로 ‘화쟁론’을 들 수 있다. ‘화쟁’이란, 언 듯 보면 여러 요소들이 뒤엉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관점을 말하는 것 같다. 진리를 깨달은 이에게는 모든 존재들이 자연스럽게 정돈되어 있는 까닭에, 어리석은 이들에게 그 점을 일깨워주려는 것이 그의 화쟁론이 아닌가 한다.

원효 화쟁론의 구체적인 모습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의 여러 저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원효의 현존저서에는 그가 67개의 주제에 대해서 화쟁한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이들을 내용상 비슷한 것끼리 묶으면 13개의 그룹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16개의 사례가 ‘불신(佛身)’에 대한 것이다.<sup>1)</sup> 본고는 이처럼 원효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

1) ①총13개의 그룹은 다음과 같다. 제1그룹 佛身(총16개), 제2그룹 智慧(총10개), 제3그룹 佛性(총10개), 제4그룹 經典(총6개), 제5그룹 涅槃(총6개), 제6그룹 本體(총5개), 제7그룹 一乘(총4개), 제8그룹 緣起(총3개), 제9그룹 修行(총2개), 제10그룹 佛土(총2개), 제11그룹 戒律(총1개), 제12그룹 法會(총1개), 제13그룹 轉輪王(총1개). 줄고,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 박사학위논문(동국대학교 대학원, 2008), pp.72-77.  
②원효는 『금광명경』, 『대승동승경』, 『대승기신론』, 『섭대승론』 등 여러 경론에 나타난 불신론과 종래 여러 학설을 참고하여, 『화엄경소』, 『금광명경소』, 『능가경중요』, 『열반중요』, 『무량수경중요』, 『범망경보살계본사기』, 『기신론소』, 『십문화쟁론』 등의 여러 저서에 자신의 불신관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원효의 불신관에 대해서는, 이기영, 『원효사상1: 세계관』, 서울: 홍법원, 1967, pp.277-306.; 이평래, 「원효의 삼신설」, 『신라불교역대장사상연구』, 서울: 민족사, 1996.; 김상현, 원효의 불신에 대한 이해, 『한국사상사학』11, 한국사상사학회, 1998 등의 연구가 있

한 불신에 관해서 그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불신 중에서 법신불(法身佛), 보신불(報身佛), 응신불(應身佛)에 대해서 각각 1개, 3개, 12개의 사례가 현재 원효저서에 남아있다. 이 중에서 법신불은 『열반종요』에서 ‘법신은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1개의 증형사례만이 등장한다.<sup>2)</sup> 또한, 응신불은 주로 『미륵상생경종요』에서 미륵보살과 관련된 점을 논하고 있는데 모두 소형사례들만이 등장할 뿐이다.<sup>3)</sup>

이에 비하면, 보신불은 『기신론소』, 『무량수경종요』, 『열반종요』 등 3개 저서에서 자세히 논하고 있다.<sup>4)</sup> 이 중에서도 특히, 『열반종요』 「제2장 경중」, 「제1절 열반」, 「제6관 사덕문」에서는 “보신불은 상주하는가, 무상한가?”에 대한 논쟁을 화해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관련논의 중에서 단연 압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열반종요』에 등장하는 이 논의는 원효의 대표적인 화쟁논서인 『십문화쟁론』의 1개문으로도 등장한 사실이 드러났다.<sup>5)</sup> 신라시대 화엄관

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와는 시각을 조금 달리하여, ‘원효의 화쟁론’을 중요한 토대로 삼아서 ‘원효의 불신관’에 접근하려고 한다.

- 2) 원효, 『열반종요』(韓佛全1, 532, 중-533, 상).
- 3) 원효, 『미륵상생경종요』(韓佛全1, 548, 하-552, 하).
- 4) ①『기신론소』에서는 “무엇이 응신불과 보신불인가?”라는 논점을 가지고, 동성경, 금고경, 섭론, 기신론에서 응신불과 보신불에 대해서 정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원효, 『대승기신론소기회본』(韓佛全1, 773, 중-하)] ②『무량수경종요』에서는 “자수용신(自受用身)은 형상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논점을 가지고, 형색을 여윈 法性的 淨土에서 살기 때문에 형상이 없다는 설과 장애가 없는 미묘한 색이 있다는 설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원효, 『무량수경종요』(韓佛全1, 555, 상-하) ③『열반종요』에서는 “보신불은 상주하는가, 무상한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원효, 앞의 책 『열반종요』, 536, 상-537, 하.
- 5) ①알려진 바와 같이, 『십문화쟁론』은 현재 총5장만 남아있다. 이 중에서, 제9·10장은 「공유이집화쟁문」의 일부이고, 제15·16장은 「불성유무화쟁문」의 일부이다. 한편, 제31장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대체로 『십문화쟁론』이 아니라 『이장의』의 일부로 보고 있다. 특히, 이정희는, 이것을 발견한 최범술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조사를 마친 후 별 관심 없이 두었다가 복원 당시 그러한 사실을 잊은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정희, 「『십문화쟁론』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한국불교학』 별집 (서울: 한국불교학회, 2008) p.332. ②이처럼, 『십문화쟁론』이 불완전하

런 저서로 『대승기신론동이약집(이하 ‘동이약집’)』이라는 저서가 있는데,<sup>6)</sup> 여기에 인용된 글은 원효가 『열반중요』에서 논의한 내용과 같다. 그리고 인용문은 ‘구룡화쟁론문(丘龍和諍論云)’이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구룡’은 원효를 가리키고 ‘화쟁론’은 『십문화쟁론』을 가리키므로 이 글이 원효의 『십문화쟁론』을 인용한 글임을 알 수 있다.<sup>7)</sup>

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그 노력 중에서 이종익의 연구가 특히 주목되는데, 그는 『십문화쟁론』을 인용한 문구들과 원효 저서들의 내용을 참고하여 대체적이거나 총10문을 복원하였다. 이 10개문 중에서 『열반중요』와 『동이약집』을 근거로 「佛身異義和諍門」을 주장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원효가 『열반중요』에서 보신의 상주성과 무상성을 논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이종익, 「원효의 『십문화쟁론』 연구」, 『한국의 사상가 10인: 원효』(서울: 예문서원, 2002) pp.261-263. ③참고로, 『십문화쟁론』의 ‘十門’이 ‘10개 문’을 말하는 것인지, ‘많은 문’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줄고, 「원효의 『십문화쟁론』 「불성유무화쟁문」 검토」, 『한국불교학』 제66집, 서울: 한국불교학회, 2013, pp.200-201.

- 6) 『동이약집』은 유식사상을 담고 있는 『성유식론』과 여래장사상을 담고 있는 『대승기신론』에서 서로 의견이 다른 8가지 주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①14세기 초까지는 일본불교문헌에 흥복사 ‘智憬’이 저술한 것으로 되어있다. ②19세기 이후에는 신라의 ‘見登’이 저술한 것으로 주장한다. ③1930년대에는 위의 양설을 종합하여 ‘智憬이 저술하고 見登이 보충’하였다는 설이 등장하였다. ④2001년에 최연식은 8세기 후반(780년경)에 일본 동대사의 승려 ‘지경’이 저술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로, 첫째, 跋文에 저자의 이름이 적혀있고, 둘째, 序文과 割註는 후대에 보충한 것이 아니라 지경의 것이며, 셋째, ‘靑丘沙門見登之輔’라는 문구는 견등이 이 책에 무언가를 보충하였거나 후대에 착각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연식, 신라 견등의 저술과 사상경향, 『한국사연구』 제115집, 한국사연구회, 2001 참고. ⑤2005년에 이정희는 ‘見登이 저술하였고 智憬이 보충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로, 첫째, ‘見登之輔’는 “지경이 견등의 之[동이약집]를 보충하였다.”라는 의미이고, 둘째, 서문과 발문은 지경의 것이지만, 지경이 저술을 모아서 지었다고 했으며, 셋째, 내용상 案云은 유식과 기신을 화해하려는 견등의 설이고 集者云은 화해하려는 의도가 아닌 지경의 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정희, 「대승기신론동이약집 저자문제에 대해서」, 『한국불교학』 제41집, 서울: 한국불교학회, 2005 참고. 또한, 이러한 이정희의 설에 대해서 최연식의 박력 있는 논평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 7) 『동이약집』 제2장 眞智同異門에서, ‘부처님의 4가지 지혜’에 관한 『성유식론』과 『기신론』의 입장을 서술한 뒤에, 8가지 점을 논한다. 이 중에서 2번째 사항을 논하는 과정에서 원효의 말을 인용한다. “丘龍和諍論云 夫 佛地萬德略有二門 若從因生起之門 ….” (견등, 『동이약집』(韓佛全3, 695, 상)

이와 같이, 원효는 불신 중에서도 보신불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하였고, 보신불에 관한 논의 중에서도 특히 ‘보신불의 상주성과 무상성’에 관하여 핵심적으로 논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본고에서는 원효의 불신화쟁론을 연구과제로 삼되, 구체적으로는 ‘보신불의 상주성과 무상성’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하여 원효가 화쟁한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원효의 저서 중에는 『열반종요』의 해당 부분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고, 『동이약집』에서 원효의 『십문화쟁론』을 인용한 내용도 상당부분 고려하였으며, 『기신론소』와 『무량수경종요』 등의 기타 저서는 부분적으로 참고하였다. 또한, 원효의 저술내용과 화쟁론을 파악하는 있어서 현대학자들의 연구성과에 상당부분 의지하였음을 아울러 밝혀둔다.<sup>8)</sup>

## II. 무상설과 상주설

일반적인 논쟁에서와 같이, 원효의 화쟁론도 ‘각설의 입장’ + ‘상호간의 논란’ + ‘제3자의 평결’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9)</sup> 이러한 연구 성과를 전제로 하여, 원효의 불신화쟁론도 이러한 순서에 맞추어 차례대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다. 먼저, 여기에서는 처음 부분으로 ‘양설의 입장’이 과연 어떠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sup>10)</sup>

8) 본고에 도움을 준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에 대부분 표시하였다.

9) 원효의 화쟁론은 일반적으로 ‘주장’ + ‘논란’ + ‘회통’ 이라고 하는 3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줄고, 앞의 논문,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 pp.72-83.

10) 양설의 입장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열반종요』와 『십문화쟁론』의 순서가 같지 않다. 『열반종요』에서는 상주설이 먼저 등장하고 무상설이 나중에 등장한다. 그리고 『동이약집』에서 ‘初師(제1논사)’는 무상설을, ‘後師(제2논사)’는 상주설을 논하고 있으므로, 『십문화쟁론』에서는 무상설이 먼저 등장하고 상주설이 나중에 등장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입장을 말하는 순서가 서로 다른 것은, 아마도 원효가 같은 내용을 저술할 때 독자들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게끔 변화를 준 것은 아닐

## 1. 무상설의 입장

먼저, 무상설의 기본입장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이점에 대해서는 『동이약집』에는 직접적으로 충분한 언급이 없으므로, 『열반종요』에 적혀있는 내용을 살펴본다.<sup>11)</sup>

무상에 집착하는 분들은 말한다. 부처님의 보신은 발생의 원인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고, 소멸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고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신은 법신을 의지하여 상속하면서 항상 존재하여 미래가 다하도록 끝날 때가 없으니, 잠시 동안에 닳아 없어지는 생사와는 같지 않다. 이러한 도리로 말미암아 ‘상주하게 된다’고 말하고, 늙고 죽지 않기에 ‘변화하지 않는다’고도 이른다.<sup>12)</sup>

이 글에서, 무상설은 보신이 발생할 원인에 의해서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무상하다고 한다. 즉, ‘태어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고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신은 반드시 소멸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신은 법신을 의지하기에 미래가 다하도록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상주하게 된다’고 하고,<sup>13)</sup> 혹자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말할 뿐이라고 한다.<sup>14)</sup>

그런 뒤, 무상설은 심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의 보신은 영원

까 짐작된다.

- 11) 원효가 『열반종요』를 먼저 저술하였는지, 『십문화쟁론』을 먼저 저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무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십문화쟁론』은 원효의 독특한 사상을 잘 드러낸 책이고, 성격상 ‘논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존저서에서 이것과 관련부분을 일부 뽑아서 그것을 보다 본격적으로 확대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십문화쟁론』보다는 『열반종요』가 먼저 저술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 12) 원효, 앞의 책, 『열반종요』, p.536, 중, “執無常者 說言報佛 生因所生 不得無滅 生者必滅 一向說故 然依法身 相續恒存 窮未來際 永無終盡 不同生死 念念磨滅 由是道理 說爲常住 無老死故 名不變易.”
- 13) 위의 책, p.536, 중, “如四相品云 …(중략)… 如來不名命終.”
- 14) 위의 책, p.536중-하, “如來性品云 …(중략)… 常住不變.”

히 상주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 즉, 『열반경』 「성행품」에 의하면, 성문, 연각, 부처님의 심성이 서로 각기 다르다. 그리고 이처럼 서로 심성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의 보신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위(有爲)의 존재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발생하고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다.<sup>15)</sup>

이상, 『열반중요』의 내용을 통해서 무상설의 기본입장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보신은 반드시 소멸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첫째, 태어난 것은 반드시 소멸하기 때문이며, 둘째, 보신은 다른 존재와는 심성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16)</sup> 다만, 보신은 법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상주하게 된다’고 하고, ‘변화하지 않는다’고 말할 따름이라는 것이다.<sup>17)</sup>

## 2. 상주설의 입장

다음, “상주설이 주장하는 그들의 기본입장은 어떠한 것인가?” 『열반중

15) 위의 책, p.536, 하, “又聖行品云 …(중략)… 是生滅法.”

16) 참고로, 『동이약집』에는 직접 ‘불신론’을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처님의 4가지 지혜’를 논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이 등장한다. 『동이약집』에서는 부처님의 4가지 지혜에 대한 『성유식론』의 입장을 서술한 뒤에, “대원경지를 제외한 3가지 지혜도 항상 이치를 비춤에 쉽니 없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이에 대해서, “계현, 규기 등의 논사들은, 비록 지혜가 이치와 하나가 되어서 주관과 객관의 구별이 없어지지만, 이치는 無爲이고 지혜는 有爲인 까닭에, 이치는 상주하지만 지혜는 무상하다고 말한다.”고 한다. 여기에서, 무상설의 주장이 『동이약집』에서 말하는 계현, 규기 등의 주장과 어느 정도 통함을 알 수 있다. (견등, 앞의 책, pp.692하-693중)

17) 참고로, 『동이약집』에는 직접 ‘불신론’을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처님의 4가지 지혜’를 논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이 등장한다. 『동이약집』에서는 “대원경지를 제외한 3가지 지혜도 항상 이치를 비춤에 쉽니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계현, 규기 등의 논사들의 의견을 제시한 뒤에, “다른 곳에서, ‘여래는 無爲이고 상주한다’고 말한 것은, 태어나고 죽은 것과 같이 속히 소멸하는 것과 같은 유위가 아니어서 그와 같은 유위와는 다르기에 무위라고 한 것이다. 미래제를 마치고 상속되고 끊어지지 않고 항상 존재하기에 상주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도 해당내용이 무상설의 주장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위의 책, p.693, 중)

요』에 의하면, 상주설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세부적인 입장이 있다.

상주에 집착하는 견해 안에도 또한 2가지 입장이 있다. 첫째 입장에서는 말하기를, “보신의 공덕은 발생하지만 소멸하지는 않는다. 또한, 발생의 원인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치를 증득함이 구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모습을 떠났고, 모습을 떠났기 때문에 상주하여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sup>18)</sup>

이 글에서, 상주설의 첫째 입장에서는, ‘보신은 발생의 원인 자체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상주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말을 언 듯 들으면, ‘보신은 발생할 수도 없게 되는가?’라는 의심이 들기 쉽기 때문에, “발생의 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하여서,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이고 있다.<sup>19)</sup> 또한, 이러한 보신은 모습을 떠났고, 그렇기 때문에 상주하여 변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둘째 입장에서 말한다. “보신불의 공덕은 비록 발생의 원인을 얻었지만, 발생의 모습을 벗어난다. 비록 ‘본래 없었던 것이 처음으로 있게 된 것이지만, 본래 없었던 것이 지금에만 있게 된 것은 아니다.’ 이미 지금에만 있게 된 것도 아니고, 또한 나중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도리로 말미암아 삼세를 멀리 초월하는 것이요, 삼세를 초월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영원히 머문다.”<sup>20)</sup>

18) 원효, 앞의 책 『열반중요』, p.536,상, “執常之內 亦有二家 一家說云 報佛功德 有生無滅 生因所滅故 不得無生 證理究竟故離相 離相故常住不變.”

19) 이 글은, 인용문에서, “발생의 원인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生因所滅故 不得無生”라고 한 말을 필자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재해석한 것이다. 즉, “보신의 공덕은 발생하지만 소멸하지는 않는다. 報佛功德 有生無滅”라는 말을 듣고, 독자들은 “그렇다면, 보신은 발생할 수도 없게 되는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발생의 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하여서,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는 것이 필자의 해석이다.

20) 앞의 책, p.536,상, “第二家云 報佛功德 雖生因得 而離生相 雖是本無始有 而非本無今有 既非今有 亦非後無 由是道理 遠離三際 離三際故 凝然常住.”

이글에서, 상주설의 둘째 입장에서는, ‘보신은 발생의 원인은 존재하지만, 발생의 모습을 벗어났기 때문에 상주한다’고 주장한다. 즉, 보신은 본래 없었던 것이 처음으로 있게 된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현재·미래를 초월하여 영원히 머문다는 것이다. 그런 뒤에, 『열반경』 「순타장」을 근거로 ‘무위’라고 말하고,<sup>21)</sup> 『열반경』 「장수품」을 제시하며 ‘상주’한다고 한다.<sup>22)</sup>

이상, 『열반종요』의 내용을 통해서 상주설의 기본입장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보신불은 소멸하지 않고 상주한다는 것이다.<sup>23)</sup> 그 이유로, 첫째, 보신불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자체가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에, 보신불은 발생만 있고 소멸은 없다는 것이고, 둘째, 보신불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남아 있지만 발생하는 모습을 떠났기 때문에, 보신불은 영원히 머문다는 것이다.

### III. 양설의 중요논점

원효의 화쟁론에서 소위 ‘논란’이란, 각설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거나 상대의 약점을 지적하면서 ‘공격’하거나, 상대의 공격에 반박하거나 상대의 논지를 흡수하면서 ‘방어’하는 것을 말한다.<sup>24)</sup> 원효는 『십문화쟁론』에

21) 위의 책, p.536,상, “如純陀章云 … 중략 … 如來定是無爲.”

22) 위의 책, p.536,상, “長壽品云 … 중략 … 至我至處.”

23) 참고로, 『동이약집』에는 직접 ‘불신론’을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처님의 4가지 지혜’를 논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이 등장한다. 『동이약집』에서는 “대원경지를 제외한 3가지 지혜도 항상 이치를 비춤에 쉽니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광, 길장 등 논사들은, 불과에 이르지 못하면 무명이 남아 있어서 생멸이 있다. 하지만, 불과에 이르면 무명이 완전히 사라져서 진리와 하나가 되어서 경계와 지혜와 같은 주관과 객관의 구별이 사라진다. 그리하여 경계처럼 지혜도 항상 머물러 생멸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상주설의 주장이 지광, 길장 등의 주장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견등, 앞의 책, p.693,중)

24) 졸고, 앞의 논문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 pp.77-103.

서 이러한 ‘논란’에 해당되는 부분을 남겨놓았는데,<sup>25)</sup> 『열반중요』의 불신 관련 논의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아래의 3가지 논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 1. 경전의 근거

양설은 ‘경전에 제시된 근거’와 같이 비교적 손쉽게 논란을 벌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즉, 무상설의 입장에서는 ‘상주’라고 쓰인 경전의 문구에 대해서 그것이 쓰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상주설의 입장에서는 ‘무상’이라고 쓰인 경전의 문구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sup>26)</sup> 먼저, 무상설의 설명을 들어본다.

경전에, “상주의 두 글자를 닮고 익히면, 나에게 의해서 행하여진 바를 따라서 내가 이른 곳에 이른다” 등의 문구가 있다. 이 경문들은 성문들이 무위에 집착하여 전도된 4가지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에 진여의 법신을 들어서 상주라고 한 것이다. 왜냐하면, 저 성문들은 법공을 통달하지 못하고, 여래의 법신은 모든 곳에 두루 있어서 무위의 존재로서 상주하지만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이러한 색신을 드러내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sup>27)</sup>

이 글에서, 무상설은 경전에 등장한 ‘상주’는 말은 단지 방편에 불과한

- 25) ①『십문화쟁론』에서 실제로 발견된 부분 중, 「공유이집화쟁문」은 ‘회통’부분이다. 줄고, 「원효의 공유화쟁론」, 『한국불교학』제64집, 서울: 한국불교학회, 2012, pp.234-237. ②『십문화쟁론』 불성유무화쟁문은 ‘논란’부분이다. 줄고, 앞의 논문, 「원효의 『십문화쟁론』 「불성유무화쟁문」 검토」, pp.202-204.
- 26) 논쟁을 한다는 것은 공격과 방어를 한다는 것인데, 『열반중요』에서는 양설이 공격은 하지 않고 방어만을 하고 있다. 생각건대, 양설이 방어하는 것은 아마도 상대방이 그 점에 대해서 공격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일 것이다.
- 27) 원효, 앞의 책, 『열반중요』, p.536, 하, “又言 修習常住二字 隨我所行 至我至處等文者 爲對聲聞 無爲四倒 故約眞如法身 而說爲常住 以彼聲聞 不達法空 不知如來法身 遍一切處 無爲常住 隨於物機 現此色身.”

말이라고 변호하고 있다. 즉, 『열반경』 「덕왕보살품」에서, ‘부처님은 상주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한 취지는 성문들이 무위에 집착하고 있기에 그것을 다스리기 위하여, 진여의 법신을 염두에 두고, ‘상주한다고 말씀했다는 것이다. 즉, 그 문구는 방편으로 하신 말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음, 상주설의 설명을 들어본다.

다른 데서 말씀하신, ‘부처님은 상주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한 것은, 모두 부처님의 화신(化身)으로서의 모습을 말씀한 것이지, 보신(報身)으로서의 모습을 말한 것이 아니다. 이는 「덕왕보살품」에서 이른 것과 같다. “여래는 상주하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몸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상주하지 아니하다. 어찌하여 상주하지 아니한다고 하는가?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상주하는 존재는 지혜가 없어서 마치 허공과 같다. 그런데, 부처님은 마음이 있는 까닭에 상주하지 아니한다.”<sup>28)</sup>

이 글에서, 상주설은 경전에 등장한 ‘무상’이라는 문구는 보신이 아니라 화신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열반경』 「덕왕보살품」에서, ‘부처님은 상주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한 부처님은 보신불이 아니라, 화신불이라는 것이다.<sup>29)</sup> 그래서 ‘보신불은 상주한다’

28) 위의 책, p.536, 상-중, “餘處說 非常住者 皆就佛化相 非說報身 如德王品云 如來非常 何以故 身有分故 是故非常 云何非常 以有智故 常法無知 猶如虛空 如來有心 是故非常.”

29) 경론에 따라서 보신불과 화신불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 이점과 관련해서는 원효가 『기신론소』에서 논의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는 “무엇이 응신불과 보신불인가?”에 대해서 논하였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同性經에서는 예토의 성불을 화신이라고 하고, 정토의 성도를 보신이라고 하며, 둘째, 金鼓經에서는 32상과 80중호의 상을 응신이라고 하고 육도의 모습을 따라 나타난 몸을 화신이라고 하며, 셋째, 攝論에서는 地前에서 보이는 것을 변화신이라고 하고, 地上에서 보이는 것을 受用身이라고 하며, 넷째, 起信論에서는 범부와 이승에게 보이는 육도의 차별상을 응신이라고 하고, 十解 이상의 보살에게 보이는 모습을 보신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처럼 여러 경론에서 서로 다르게 말한 것은, 법문이 한량이 없어서 오직 한 길만이 아니라 곳에 따라서 시설하였기 때문이다.

는 자신의 주장은 여전히 정당하다고 변호하고 있다.

이상, ‘경전의 근거’와 관련하여 『열반중요』에서 이루어진 양설의 논란을 지켜보았다. 요컨대, ‘부처님은 상주한다’는 경전의 말씀은 성문들이 무위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다스리기 위한 방편설이라는 것이 무상설의 변론이고, ‘부처님은 상주하지 아니한다’는 경전의 말씀은 보신불이 아니라 화신불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상주설의 변론 요지였다.

생각건대, 논쟁을 하다보면 권위 있는 저서에 기록된 문구에 의지하여 공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경전의 문구를 근거로 상주설과 무상설이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또한, 이들이 공방한 내용을 살펴보다도, “그것은 방편설일 뿐이다.” “그것은 화신불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말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서, 이점에 관한 공방만으로는 양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 2. 해석의 차이

상대방의 논리를 정밀하게 분석한 뒤에 이것을 새롭게 해석하여 상대방을 신랄하게 논파하는 대목이 『열반중요』에 등장한다. 자세히 말하면 2가지 논란이 있는데, 하나는 ‘7가지 인연’과 관련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공통된 원인’과 관련해서이다. 이 2가지 논란 모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응수하는 방식인데, 먼저 소위 ‘7가지 인연’과 관련된 장면을 본다.

만약, “덕왕보살품에서 말한, ‘여래는 상주하지 않는다’와 관련된 7가지 인연은, 모두 ‘화신’에 대해서 상주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지, 보신에 대해서도 상주하지 않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경문에서 말한 7가지 인연은 또한 ‘무상하지 아니하다’는 말도 성립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두 ‘법신’에 대해서 무상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지, 또한 보신에 대해서도

---

따라서 모두 도리가 있다”고 하였다. (원효, 앞의 책, 『대승기신론소기회본』, p.773, 중-하)

무상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30)</sup>

이 글에서, 무상설은 ‘7가지 인연’과 관련된 상주설의 주장을 되받아치고 있다. 즉, 상주설에서는 ‘7가지 인연’이 모두 ‘화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는데, 이제 무상설에서는 상주설의 논리를 일단 그대로 받아들인 뒤에 이것을 나름대로 달리 해석하여 말한다. 그리하여, “그 7가지 인연들은 모두 ‘법신’에 해당하여 상주한다. 그러므로 보신불은 상주하지 아니하다”고 말하고 있다.<sup>31)</sup>

다음, 소위 ‘공통된 원인’과 관련된 장면을 본다.

만일 저들이 억지로 말하여, “법신은 발생하지 않은 까닭에 상주한다는 뜻에 따르면, 또한 보신도 발생하지 않은 까닭에 상주한다. 그러므로, 이 원인은 법신과 보신에서 의미가 공통된다.”고 한다면, 또한 다른 말도 가능할 것이다. 즉, “화신은 지혜가 있는 까닭에 상주하지 아니하다는 뜻에 의하면, 또한 보신도 지혜가 있는 까닭에 상주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이 원인은 보신과 화신에서 의미가 공통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뒷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앞말이 이치에 맞을 수 있겠는가!<sup>32)</sup>

30) 원효, 앞의 책, 『열반종요』, pp.536,하-537,상, “又若德王品說 如來非常住 七種因緣 皆就化身 說非常住 非說報佛 亦常(住)者 是即彼文 亦以七因 成非無常 皆就法身 說非無常 不關報佛 亦非無常.”

31) 무상설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말한다. “①발생이 있는 존재를 무상이라고 이른다. 그런데 여래는 발생이 없기에 상주한다. ②한정이 있는 존재를 무상이라고 이른다. 그런데 여래는 발생이 없고 성씨도 없다. 그러기에 상주가 된다. ③상주하는 존재는 모든 곳에 두루 있으나, 무상한 존재는 혹은 이곳에는 있으나 저곳에는 없다고 한다. 그런데 여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기에 상주가 된다. ④무상한 존재는 있을 때에는 있다가 없을 때에는 없게 된다. 그런데 여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기에 상주가 된다. ⑤상주하는 존재는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다. 허공은 상주하기 때문에 이름도 없고 형상이 없다. 여래도 또한 그러하다. 그러기에 상주가 된다. ⑥상주하는 존재는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허공은 상주하기 때문에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여래도 또한 그러기에 상주가 된다. ⑦상주하는 존재는 삼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여래도 또한 그러하기에 상주한다. 이와 같은 7가지 원인은 모두 법신에 해당된다.” (위의 책, pp.536,하-537,상)

32) 위의 책, p.537,상, “若彼教言 隨順法身無生故常 報佛亦同無生故常 是故此因義通 二身者 他亦爾可言 化身有知故非常 報佛有知亦非常住 是故此因義通 二身 此若不

이 글에서, 무상설은 ‘공통된 원인’과 관련된 상주설의 공격을 반박하고 있다. 즉, 상주설은 법신과 보신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공통된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신이 상주하는 것처럼 보신도 상주한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대해서, 무상설은 화신과 보신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의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신이 무상한 것처럼 보신도 무상하다’고 새롭게 해석하여 응수하고 있다.

이상, ‘해석의 차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논란을 지켜보았다. 요컨대, 상주설은 ‘7가지 인연’은 모두 화신에 해당하고, 법신과 보신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공통된 원인’이 있기에 보신불은 상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무상설은 이 주장을 새롭게 해석하여, ‘7가지 인연’은 모두 법신에 해당하고, 화신과 보신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된 원인’이 있기에, 보신불은 무상하다고 논박하고 있다.

생각건대, 논쟁을 하다보면,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활용하여 자신의 논거로 삼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주설이 ‘7가지 인연’과 ‘공통된 원인’에 대해서 주장한 것을 무상설이 새롭게 해석해서 자신의 논거로 삼고 있다. 또한, 이들이 공방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양자 모두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만한 것들이어서, 이점에 관한 공방만으로는 양설의 선악을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 3. 언어의 한계

무상설은 상주설의 기본입장 중의 하나에 대해서 매우 치밀하게 논란을 제기한다. 그런데, 이 논란은 그 내용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상주설의 입장을 매우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이 장면이 등장하는 『열반중요』의 상황을 살펴본다.

---

通彼何得通.”

저 논사가 억지로 말하기를, “①비록 이 보신은 본래 없던 것이 ‘비로소 있게 된 것이지만’, 본래 없던 것이 ‘이제야 있게 된 것은 아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다만 말만 그런 것이지 실제로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만약 말한 바와 같다면, 이 말은 곧 “②비록 먼저 있었던 것이 ‘나중에 없어지지는 않지만’, ③먼저 있었던 것이 ‘마침내 없어진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㉔만일 ‘마침내 없어진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마침내 없어진다’는 것은 바로 ‘소멸한다’는 뜻이 되어버린다. ㉕만일 이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미 나중에 없어지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마침내 없어지겠으며, ㉖이미 이제야 있지 않는데, 어찌하여 비로소 있는가! ㉗또한, 만일 나중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멸하여 없어진다’고 하면, 이 말은 곧 ‘본래 없기 때문에 생겨나게 된다’라는 뜻이 되어 버린다.<sup>33)</sup>

앞 문단에서, 무상설은 상주설의 기본입장 중의 하나를 공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주설의 기본입장은, “비록 이 보신은 본래 없던 것이 비로소 있게 된 것이지만, 본래 없던 것이 이제야 있게 된 것은 아니다.”인데, 이것을 무상설은, “비록 먼저 있었던 것이 나중에 없어지지는 않지만, 먼저 있었던 것이 마침내 없어진다.”라고 나름대로 해석한다.

뒤 문단에서, 무상설은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상주설의 모순점들을 지적한다. 첫째(㉔), 위의 ㉓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마침내 없어진다’고 하면 ‘소멸된다’는 뜻이어서, 상주설 주장과 모순된다고 한다. 둘째(㉕), 위의 ㉒·㉓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나중에 없어지지 않는다’와 ‘마침내 없어진다’는 서로 모순된다고 한다. 셋째(㉖), 위의 ㉑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비로소 있게 된 것이다’와 ‘이제야 있게 된 것은 아니다’는 서로 모순된다고 한다. 넷째(㉗), 위의 ㉒·㉓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만일 “나

33) 위의 책, p.537, 상, “彼強言 雖是本無始有 而非本無今有者 但有其言 都無其實 所以然者 若如所言 是即雖非先有後無 而是先有終無 若許終無 終無即滅 若不許言 既非後無 何爲終無 既非今有 何爲始有 又若非後無 故滅盡者 即應是本無故 有生起也.”

중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멸하여 없어진다”는 뜻으로 말했다면, 이는 “본래 없기 때문에 생겨나게 된다”는 뜻이 되어서 모순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무상설의 박진감 넘치는 공격에 대해서, 상주설이 방어한 내용은 아쉽게도 원효의 저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은 어째서 일까? 원효가 기록하였지만 오늘날 남아있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사정상 기록하지 않은 것인가? 필자는 후자에 비중을 두고 싶다. 왜냐하면, 『열반중요』에서 원효가 상주설이 부족한 부분을 논술하는 과정에서, ‘언어의 한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상주에 집착하는 분들은, 비록 상주를 즐기지만 그 ‘상주’의 의미에 부족한 뜻이 있다. 말하자면, “비로소 처음으로 존재하는 공덕은 그 앞의 지위에는 두루 미치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 공덕이 두루 미치지 못하는 데가 있다면, 곧 법계에서 증득하지 못한 데가 있게 된다. … 중략 … 이미 모든 삼세에 평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금강 이전의 지위에는 미치지 못하겠는가! 그러나 이 도리는 모든 부처님께서 비밀히 감추신 것이어서, 중생들의 생각으로 측량될 수 없다. 다만,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러 믿음을 일으켜야 할 따름이다.<sup>34)</sup>

이 글에서, 원효는 상주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동시에 그럴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처음으로 존재하는 공덕은 그 앞의 지위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상주설의 주장은, “부처님께서 법계에서 증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가 되므로, 수증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도리는 모든 부처님께서 비밀히 감추신 것이어서, 중생들의 생각으로 측량될 수 없다”라는 원효의 설명은 상주설의 문제점을 충분히 감싸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 ‘언어의 한계’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논란을 지켜보았다. 요컨대,

34) 위의 책, p.537, 하, “執常家 雖樂常住 而其常義 亦有不足意 謂始有功德 不遍於前位故 若此功德 有所不遍 卽於法界 有所不證 … 중략 … 旣言等於一切三世 豈不遍金剛以前 然此道理 諸佛祕藏 非思量者之所能測 但依佛言 起仰信耳.”

상주설이 원래 주장한, “보신은 본래 없던 것이 비로소 있게 된 것이지만, 본래 없던 것이 이제야 있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일상적인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상설은 바로 이러한 언급을 대상으로 그 모순점을 지적하며 공박한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지금 남아있는 글은 없지만, 무상설의 주장 중에서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부분을 상주설이 공박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생각건대, 우리는 가끔 일상적인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억지로 표현하였는데, 그것을 상대방이 일상적인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삼는 바람에 난처한 경우가 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그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 등에 관한 논의에서 바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 도리는 모든 부처님께서 비밀히 감추신 것이어서, 중생들의 생각으로 측량될 수 없다.”는 원효의 말이 보다 사실에 가까우리라 짐작할 따름이다.

#### IV. 원효의 판단

지금까지, 상주설과 무상설의 입장을 살펴보고, 그들이 서로 논쟁하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한 원효의 궁극적인 판단은 어떠한지 경청하고자 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십문화쟁론』에서는 ‘양설이 모두 옳다’는 취지로 회통하고 있고, 『열반종요』에서는 ‘양설이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하다’는 취지로 회통하고 있어서, 판단의 형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 1. ‘양설은 옳다’

먼저, 『십문화쟁론』을 직접 인용한 견동의 『동이약집』의 해당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5)</sup>

구룡(원효)은 화쟁론에서 말하였다. “대저, 부처의 경지에서 갖는 온갖 덕은 대체로 2가지 부문이 있다. 만약, ‘원인에 따라서 생겨난다’는 부문에서 본다면, 보신불의 공덕은 찰나에 생멸하는 것이니, 앞의 논사에 의해서 말해진 것은 바로 이러한 부문을 취한 것이다. 만약 ‘원인과 무관하게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보신불의 공덕은 당연히 상주하는 것이니, 뒤의 논사에 의해서 말해진 것은 또한 이러한 부문을 취한 것이다. 각각의 공덕을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부문이 존재하는 것이니, 이 두 가지 부분은 서로 통하고 위배되지 아니하다.<sup>36)</sup>

이 글에서, 원효는 ‘상주설과 무상설은 모두 옳다’고 선언하고 있다. 부처의 공덕에는 ‘원인에 따라서 생겨나는 부문[從因生起之門]’과, ‘원인과 무관하게 근원으로 돌아가는 부문[息緣歸原之門]’이 있는데, 무상설은 첫째 부문을 취한 결과 갖게 된 견해이고 상주설은 둘째 부문을 취한 결과 갖게 된 견해이다. 그런데, 이 두 부문은 서로 통하기 때문에, 양설도 또한 모두 회통된다는 것이다.

- 35) 이종익은 불신과 관련하여 『십문화쟁론』에 등장하였을 화쟁문을 「佛身異義和諍門」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필자는 이 이름이 적합하지 못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첫째, 이종익이 근거로 제시한 『동이약집』 「제6 三身同異門」은 ‘보신과 응신의 다른 뜻’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서 그러한 이름을 붙이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丘龍和會’로 시작하는 인용문에서 ‘화회’는 회통한다는 의미이어서, 반드시 『십문화쟁론』을 인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이 글의 내용은 필자가 확인한 결과, 원효의 『기신론소』에 등장하는 것과 거의 모든 글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기신론소』를 인용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①견등, 앞의 책, p.712,상 ②원효, 앞의 책, 『대승기신론소기회본』, p.773, 중-하 ‘비교’. 둘째, 이종익이 근거로 제시한 『동이약집』 「제2 眞智同異門」은 ‘보신불의 상주성과 무상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서 그러한 이름을 붙이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丘龍和諍論云’으로 시작하는 인용문 중에서 ‘화쟁론’은 『십문화쟁론』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십문화쟁론』을 인용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36) 견등, 앞의 책, p.695,상, “丘龍和諍論云 夫 佛地萬德略有二門 若從因生起之門 報佛功德利那生滅 初師所說且得此門 若就息緣歸原之門 報佛功德凝然常住 後師所說亦得此門 隨一一德有此二門 二門相通不相違背.”

생각전대, ‘원인에 따라서 생겨난다’는 것은, 연기법을 구성하는 인과율을 말하므로, 결국 연기법의 적용을 받는 ‘유위법’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으며, ‘원인과 무관하게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연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위법’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효의 판단 취지는, ‘유위법에 관한 측면에서는 보신은 무상하고, 무위법에 관한 측면에서는 보신은 상주하다’라고 해석된다.

한편, 한 가지 눈여겨 볼 점이 있다. 원효가 『십문화쟁론』에서 양설을 회통하는 경우에 ‘원인에 따라서 생겨난다’는 부문과,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부문을 설정하고 양설을 회통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2가지 부문’을 설정하여 회통하는 경우가 비단 이번 경우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총67개의 사례 중에서 무려 26개의 사례에서도 그러하다는 점이다.<sup>37)</sup>

## 2. ‘옳고 그르다’

다음, 같은 주제를 다룬 『열반중요』에서는 양설을 어떻게 회통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면, 아래와 같다.

묻는다. 두 논사의 말씀에 어떠한 소득과 손실이 있는가? 대답한다.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모든 말씀에 소득과 손실이 있다. 왜냐하면, 만일 결정적으로 한쪽만을 고집하면 모든 말씀에 손실이 있고, 만일 아무런 장애 없이 말하면 모두 도리가 있기 때문이다.<sup>38)</sup>

이 글에서, 원효는 무상설과 상주설 양설이 ‘동시에 옳고 그르다’고 선언하고 있다.<sup>39)</sup> 즉, 만일 결정적으로 한쪽의 주장만을 고집하면 양설이

37) 즐고, 앞의 논문,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 pp.135-137.

38) 원효, 앞의 책, 『열반중요』, p.537, 중, “問 二師所說 何得何失 答 或有說者 皆得皆失 所以然者 若決定執一邊 皆有過失 如其無障礙說 俱有道理.”

39) ‘양설이 동시에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한 경우가 총67개의 사례 중에서 8개의 사례에 해당된다. < 즐고, 앞의 논문,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 pp.137-139 >.

모두 그르게 되고, 만일 아무런 장애 없이 말하면 양설이 모두 옳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효는 도대체 그는 어떠한 근거에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일까? ‘모두 그르다’는 결론과 ‘모두 옳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사정을 순서대로 들어본다.

『능가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여래·응공·정변지, 이분들은 상주합니까? 무상합니까?”하였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상주하지도 무상하지도 아니 하니, 양쪽에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고 하고 내지 자세히 말씀하셨다. 이제, 여기서 비록 ‘보신은 상주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한 순간에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와 같은 문구들은 그 치우쳐진 집착을 깨뜨리고 있으니, 반드시 한쪽만을 취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sup>40)</sup>

이 글에서, 원효는 ‘양설이 모두 그르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즉, 『능가경』에서 부처님께서 “여래는 상주하지도 않고, 무상하지도 아니하다.”고 대답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상주’와 ‘무상’이란 말은 어디까지나 중생들의 집착을 깨뜨리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한 말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무상’을 말할 때에도 ‘순간적인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애 없이 말하면, 양설이 모두 도리가 있다’는 것은 어떠한 말인가? 보신의 공덕은 모습을 떠나고 본성도 떠나있다. 모습[相]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하고 소멸하는 모습을 떠나고 마침내 고요하여 무엇을 만드는 행위가 없다. 그러기에 상주라고 말한다. 본성[性]을 떠났기 때문에, 상주하는 본성을 떠나고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무엇도 만들지 못하는 행위가 없다. 그러기에 무상이라고 말한다.<sup>41)</sup>

40) 원효, 앞의 책, 『열반중요』, p.537, 중, “如楞伽經云 如來應供正遍知 爲是常耶 爲無常耶 佛言 非常非無常 二邊有過故 乃至廣說 今此言雖不常住 非念念滅 如是等文 破其偏執 定取一邊 不當道理。”

41) 위의 책, p.537, 중, “無障礙說二義皆得者 報佛功德 離相離性 以離相故 離生滅相 究竟寂靜 無作無爲 故說常住 以離性故 離常住性 最極喧動 無所不爲 故說無常。”

이 글에서, 원효는 ‘양설이 모두 옳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즉, 원래 보신의 공덕은 모습과 본성을 모두 떠나있다. 모습[相]을 떠났기에 발생하고 소멸하는 모습을 떠나고, 그러기에 무엇을 만드는 행위가 없어서 상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본성[性]을 떠났기에 상주하는 성품을 떠나고, 그러기에 활발히 움직여서 무엇인가 만드는 행위가 있어서 무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십문화쟁론』에서는 ‘양설이 옳다’고 하고 『열반종요』에서는 ‘옳고 그르다’고 하고 있어서, 양자가 과연 다른지 따져볼 점이 있다. 생각건대, 『십문화쟁론』에서 ‘원인에 따라서 생겨난다’는 말과 『열반종요』에서 ‘본성을 떠났다’는 말은, ‘유위법’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기에 이것은 ‘보신불의 무상성’을 가리킨다고 판단된다. 또한, 『십문화쟁론』에서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말과 『열반종요』에서 ‘모습을 떠났다’는 말은, ‘무위법’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기에 이것은 ‘보신불의 상주성’을 가리킨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보면, 이점에 관한 원효의 서로 다른 회통방식은 내용상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본고는 원효의 불신화쟁론을 살펴보기 위해서, ‘보신불의 상주성과 무상성’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하여 원효가 어떠한 견해로 화쟁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서, 『열반종요』를 중심으로 『기신론소』, 『무량수경종요』 같은 원효의 저서와 그의 『십문화쟁론』을 인용한 『동이약집』 등을 활용하였고, 이점과 관련된 현대학자들의 연구성과에서 도움을 받았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로, 양설은 각자의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무상설은, “태어난

것은 반드시 소멸하고, 다른 존재와는 심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신불은 소멸하는 무상한 존재이다”라는 입장에 있었다. 또한, 상주설은, “보신불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자체가 없거나, 발생의 원인은 있더라도 발생의 모습은 떠나 있기 때문에, 보신불은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상주한다.”라는 입장에 있었다.

둘째로, 양설은 적어도 3가지 논점에서 논쟁하였다. 첫째, 무상설은 상주관련 문구는 성문들이 무위에 집착하는 것을 다스리기 위한 방편설이라고 변호하고, 상주설은 무상관련 문구는 화신불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변론하였다. 둘째, ‘7가지 인연’과 ‘공통된 원인’과 관련된 상주설의 해석을 무상설은 자기 나름대로 새롭게 해석해서 이 논리로 반박하였다. 셋째, 무상설은 언어표현의 한계를 벗어난 상주설의 기본입장이 모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박하였다.

셋째로, 원효는 이러한 양설의 논란에 대해서 2가지 방식이지만 같은 취지로 회통하였다. 『십분화쟁론』에서는, 무상설은 ‘원인에 따라서 생겨난다’는 부문을 취하였고, 상주설은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부문을 취한 결과 가지게 된 견해이어서 ‘양설은 모두 옳다’고 하였다. 또한, 『열반중요』에서는, 결정적으로 한쪽의 주장만을 고집하면 양설이 모두 그르게 되고, 아무런 장애 없이 말하면 양설이 모두 옳게 되기에, 양설이 ‘동시에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였다.

끝으로, 본고는 원효의 불신화쟁론 중에서 주로 ‘교학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논구하다보니, ‘역사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었다. 원효의 불신화쟁론은 어떠한 역사적인 맥락에서 탄생하게 되었는지? 원효 당시에 불신론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원효 이전과 이후에 전개된 불신화쟁론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견 등, 『대승기신론동이약집』, (韓佛全3).
- 원 효, 『열반종요』(韓佛全1).
- \_\_\_\_\_, 『기신론소』(韓佛全1).
- \_\_\_\_\_, 『십문화쟁론』(韓佛全1).
- \_\_\_\_\_, 『미륵상생경중요』(韓佛全1).
- \_\_\_\_\_, 『무량수경중요』(韓佛全1).
- 박태원, 『원효의 십문화쟁론』, 서울: 세창출판사, 2013.
- 오법안, 『원효의 화쟁사상연구』, 서울: 흥법원, 1989.
- 이기영, 『원효사상1: 세계관』, 서울: 흥법원, 1967.
- 이만용, 『원효의 사상』, 전망사, 1983.
- 고영섭, 「원효 『십문화쟁론』 연구의 지형도: 조명기·최범술·이종익·이만용 복원문의 검토」, 『문학사학철학』 10, 서울: 한국불교사연구소발해동양학한국학연구원, 2007.
- 고익진, 「신라중대 화엄사상의 전개와 그 영향2」, 『불교학보』 제25집,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88.
- \_\_\_\_\_, 「신라중대 화엄사상의 전개와 그 영향1」, 『불교학보』 제24집,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87.
- 김두진, 「견등지의 화엄성불사상」, 『신라화엄사상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 김상현, 「원효의 불신에 대한 이해」, 『한국사상사학』 11, 한국사상사학회, 1998.
- 김영일, 「원효의 『십문화쟁론』 「불성유무화쟁문」 검토」, 『한국불교학』 제66권, 서울: 한국불교학회, 2013.
- \_\_\_\_\_, 「원효의 공유화쟁론」, 『한국불교학』 제64권, 서울: 한국불교학회, 2012.
- \_\_\_\_\_,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2008.
- 박태원, 「견등의 기신론관」, 『가산학보』 제1권,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1.
- 이 만, 「견등의 대승기신론동이약집에 인용된 태현의 유식사상」, 『한국불교학』 제12권, 한국불교학회, 1987.
- 이정희, 「『십문화쟁론』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한국불교학』 별집, 한국불교학회, 2008.
- \_\_\_\_\_, 「대승기신론동이약집 저자문제에 대해서」, 『한국불교학』 제41권, 서울

: 한국불교학회, 2005.

이종익, 「원효의 『십문화쟁론』 연구」, 『한국의 사상가 10인: 원효』, 예문서원, 2002.

이평래, 「원효의 삼신설」, 『신라불교여래장사상연구』, 서울: 민족사, 1996.

조명기, 「원효종사의 『십문화쟁론』 연구」, 『金剛杵』 22, 조선불교동경유학생회, 1937.

최연식, 「일본고대화엄과 신라불교」, 『한국사상사학』21, 한국사상사학회, 2003.

\_\_\_\_\_, 「신라 견등의 저술과 사상경향」, 『한국사연구』 115, 한국사연구회, 2001.

Abstract

Wonhyo' Theory of Harmonization on the Buddha-body  
- the Permanence or the Impermanence of Reward Body -

Kim, Yeong-il  
(Lecturer, Dongguk Univ.)

In order to search for Wonhyo's theory of harmonization on Buddha-body, this paper is exploring Wonhyo's ultimate solution or opinion on the disputes which were produced by the theory of permanence and the theory of impermanence on the reward Buddha-body.

First of all, the two theories have their basic grounds. The theory of impermanence says that everybody must be died so reward body is not permanent. And the theory of permanence tells that the cause of the birth is extinguished so reward body is permanent.

Secondly, the theories argue on the three topics: the testimonies of permanence or impermanence written in the Buddhist scriptures, the interpretations on the seven causes or the common causes, and the very delicate matters which are very difficult to express them into words.

Lastly, Wonhyo says that they are all right. The reason is that while the merit of Buddha has two portions: what is born according to the cause and what is going back to the original source, the theory of impermanence was built on the first portion and the theory of permanence was made on the second portion.

Key word

Wonhyo, the theory of harmonization, Wonhyo's theory of harmonization, Wonhyo's theory of harmonization on Buddha-body, the

reward body, the theory of permanence, the theory of impermanence,  
*The Reconciliation of Disputes in Ten Aspects, The Short Book on the  
Sameness and Difference in the Treatise on the Awakening of  
Mahayana Faith, The Essentials of the Nirvana Sutra.*

논문투고일 : '15. 4. 30 심사완료일 : '15. 6. 4 게재확정일 : '15. 6. 4